

# 뉴질랜드산 절편녹용 수입허용 움직임 '파장' 양록협회, 품질기준 마련 2년간 수입물량 제한 요구

정부가 절편녹용 수입을 사실상 허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사슴 사육 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빠르면 올해부터 값싼 뉴질랜드산 절편녹용이 국내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돼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양록협회에 따르면 농림부·외교통상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개 부처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실무회의를 갖고 우리나라의 절편녹용 수입이행계획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마련한 이행계획에는 ▲수입 절편녹용에 대한 품질기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품질 기준 마련 이전에도 우리측 검사관을 뉴질랜드 현지에 파견,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청은 수입 절편녹용에 대한 회분기준을 건조방법에 관계없이 28% 이하로 잠정 결정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전지녹용과 절편녹용의 유통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녹용에 대해서만 이를 구분, 절편녹용의 수입을 막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의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규정에 위배될뿐더러 ▲지난 5년간 기술적 문제를 앞세워 절편녹용 수입을 미뤄왔지만 수입시기를 계속 미룰 경우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양록협회는 한국·뉴질랜드 생산자단체간 절편녹용 수입문제에 대한 의견접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불리 절편녹용 시장 개방을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

히 품질기준 마련 이전부터 검사관을 파견하면서 까지 수입시기를 앞당기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이달 예정된 한국·뉴질랜드 정부간 협상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양록협회는 또 절편녹용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품질기준 제정때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품질기준 마련 이후에도 2년간은 수입물량을 제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 국내외 1300종 식물 .. 내년 4월 개장 대구수목원, 국제종자교류 추진 주목

대구시가 내년 4월 개장을 목표로 조성중인 대구수목원(현 입업시험장·달서구 대곡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위 수목원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 종자교류를 추진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수목원은 개장을 앞두고 세계 35개국의 150여 수목원 식물원 대학 등에 종자교환 요청을 한 결과 최근 영국왕립원예협회, 스페인 마드리드식물원, 중국 난징식물원 등 세계 유명관련 기관 42곳에서 종자분양을 약속받았다.

대구식물원은 이에 따라 400여 종의 종자를 분양해줄 것을 해외 식물원 등에 요청해 둔 상태이며 매년 300종 정도의 식물종을 외국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식물원협회 가입 및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세계적 인지도 향상에 나서는 한편 고급 선진기술 도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강점문(38) 입업시험장장은 "외국 식물종 가운데 특히 약용식물을 다양하게 확보, 약령시 등 지역 한약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며 "개장 때까지 나무 550종, 초화류 750종 등 모두 1천300종의 국내식물과 외국종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수목원은 23만4천㎡(7만1천평) 규모로 지난 90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이던 곳을 지난 97년 6~7m 높이로 복토한 뒤 103억원(국비 43억원·시비 60억원)을 들여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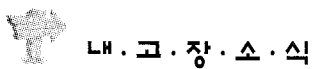
전체 공정률은 현재 95%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되면 이미 운영중인 선인장온실, 분재원을 포함해 15개 테마별 소규모 공원을 갖추게 된다.

### 1월,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연맹 가입

우리나라가 지난달 7일자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50번째 회원국이 됐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정부가 2001년 12월 7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서를 사무국에 기탁한지 30일이 경과한 7일부터 정식회원국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육종농가의 권리보호제도를 완비, 국내외적으로 우수 품종의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제천 ]

#### 한의학 중심으로 육성해야

산업자원부의 지방산업육성전략에 따라 제천지방산업단지에서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이 확정되면서 기업체 유치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충북도는 지난달 17일 지방산업육성 전략으로 오는 2003년~2006년까지 제천지방산업단지에 국비 99억을 포함 총235억원을 투자해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2000평의 용지에 연면적 1400평 규모로 건립될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는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 국내산 생약재의 품질관리 확립 및 전통의약품 개발지원에 나서게 된다.

제천지방산업단지에 전통의약품 연구센터가 건립되면 한방관련 기업체가 잇따라 들어서 지난해 5월 산업단지 착공후 한필지도 팔리지 않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체 유치에 활력을 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전북 ]

####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건립

전북도내 인삼 주산지인 진안군에 한방약초센터가 들어선다.

지난달 25일 진안군에 따

르면 올 연말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안읍 군상리 4천여평의 부지에 약초 수집·판매시설과 연구 시설, 홍보관, 전시장 등을 갖춘 한방약초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진안군에는 인삼, 더덕, 당귀 등을 재배하는 3천여 약초 전업농가와 21개 가공공장이 있어 한방약초센터가 건립되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전국 인삼 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진안군은 동부 산악권 약초수집의 중심지이며 양질의 약초 생산에 알맞은 평균 표고 400m 이상의 산간고원 지역이어서 한방약초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말했다.

### [ 제주도 ]

#### '약용식품 특별전시회' 개최

이달말까지 자연박물관서 제주도는 희귀식물이면서 오랫동안 민간약재로 사용해 온 약용식품에 대한 특별 전시회를 이달말까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연다.

전시되는 약재는 삼백초, 더덕 등 식용과 민간약재로 이용해 온 야생식물 등 50여종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기획전시가 없어, 이번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전시회를 열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자산업의 육성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품종보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1995년 종자산업법을 제정하고, 1999년부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가입을 추진해왔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은 새로 육성된 식물품종을 회원국간 공동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해 우수한 품종의 개발,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8년에 설치된 국제기구다.

## "한약 먹는 가로수 아세요"

### 한약재 찌꺼기 활용 가로수 생장촉진

'한약 먹는 나무를 아십니까?'

대구시 수성구가 가로수의 생장 촉진을 위해 화학비료 대신 한약재 찌꺼기를 사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시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 나오는 한약재 찌꺼기를 수거,상동 이서공원 뽕나무 뿌리 부근에 덮어 찌꺼기에 남아 있는 약 기운이 뿌리를 통해 스며들도록 했다.

실험결과 한약재 찌꺼기는 나무 주변 잡초발생 억제와 세균(細根) 및 염록소 생성,병해충에 대한 저항력 강화에 효과를 보였으며 습도를 유지해 토양이 굳는 것도 막을 수 있었다.수성구 관계자는 "한약재 찌꺼기를 재활용해 화학비료 구입비와 비료살포 인건비 등 연간 2억7,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 제천에 약초 염색 사업장 개관

충북 제천시 수산면 하천리에 약초 염색 사업장이 마련돼 지난달 27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1억2천만원을 투입, 185㎡ 규모의 전통 목재 한옥으로 건축된 이 사업장은 염색실과 작업실, 전시실, 추출실 등이 마련돼 있고 약초 베개를 비롯, 쿠션, 침구류, 목베개 등 약초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며 실습체험 코너도 마련했다.